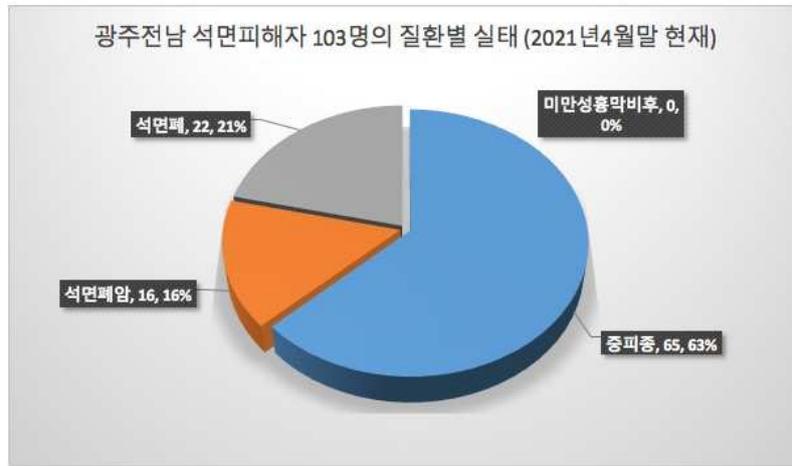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73 호, 2021 년 7 월 1 일

광주 동구 4 구역 재개발현장 등 석면조사 및 광주전남지역 석면피해 실태조사
석면피해구제법 10 년 4 개월 시행결과

광주전남지역 석면피해구제법 인정자 103 명 인정률 67%

이중 36 명은 사망후에 구제인정



석면암인 악성중피종 65 명, 석면폐암 16 명, 석면폐 22 명
광주 34 명, 전남에선 여수 14 명/목포 9 명/고흥 7 명 순으로 많아

방치된 석면슬레이트 가옥, 학교 등 석면건축물 다수,
재건축, 재개발 과정의 불법, 탈법적 석면철거 문제 심각,
생활속 석면노출로 석면질환 피해자 계속 늘어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수준을 직업성과 같게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후두암, 난소암 등 인정질환에 포함해야,
2020 년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널리 판매된 석면함유 백시멘트, 황토제품
원인밝히고 사용처 확인해 제거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광양,목포,순천,여수,장흥)

목차

1 조사배경

- 1) 석면과 건강영향
- 2)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과 시행
- 3) 광주전남지역 석면피해실태 조사 배경
- 4) 광주 동구 4 구역 재개발 건물붕괴참사지역 등 석면조사

2 광주광역시 석면피해 현황

- 1) 광주광역시 석면피해 전체 현황
- 2) 광주광역시 5 개 기초자치구별 석면피해 현황

3 전라남도 석면피해 현황

- 1) 전라남도 석면피해 전체 현황
- 2) 전라남도 22 개 기초자치 시군별 석면피해 현황

4 광주전남 석면피해 종합

5 문제점과 해결방향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김영철 사무국장 010-9542-7820
-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 010-6617-8000
- 목포환경운동연합 임경숙 사무국장 010-3684-3684
- 순천환경운동연합 안정아 사무국장 010-4608-9100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 장흥환경운동연합 김지은 활동가 010-5348-7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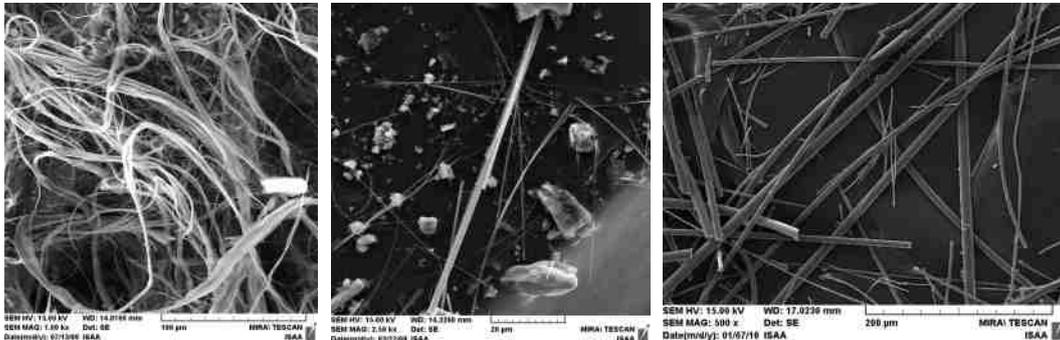
1 조사배경

1) 석면과 건강영향

- ①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 급 발암물질(group1 carcinogen)로 섬유 형태 결정의 자연광물¹이다. 석면은 극히 유연하고 1200 °C의 고온에서도 잘 견디어 보온성, 내화성에 뛰어나 채광과 가공/제조를 거쳐 천장재, 단열재, 슬레이트 지붕재 등 건축자재 및 다양한 용도로 오래전부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용해왔다.



<사진, 석면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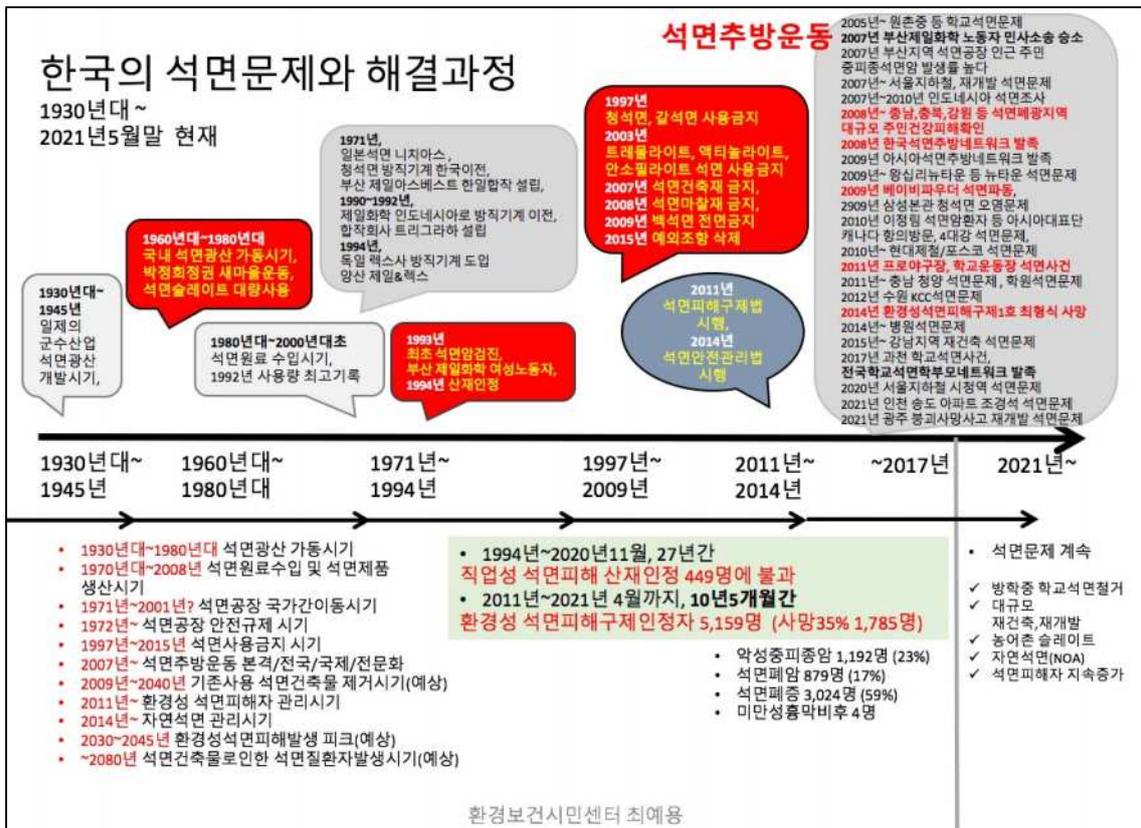


<사진, FE-SEM 전자현미경분석사진, 백석면(왼쪽), 청석면(가운데), 유리섬유(석면아님,오른쪽)>

¹ 100 만년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의 일종으로 규산염화합물이다. 석면광물의 종류는 모두 6 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문석(serpentine)계열의 백석면(chrysotile)과 각섬석(amphibole) 계열의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액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등이다. 그외에 그 자체로는 석면이 아니지만 석면섬유가 함유된 광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2009 년 베이비파우더 석면파동으로 문제가 된 '석면함유 탈크, asbestos containing talc 활석'가 있다. 이것 역시 WHO 에 의해 1 급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함유가능광물질 4 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탈크, 사문석, 질석, 해포석 등이다.

석면노출과 석면피해를 경험하면서 환경문제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 ⑤ 1930년대부터 석면광산 노동자들에게서 폐암 등 질환이 나타났지만 석면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 부터 석면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들어 북유럽국가들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는 2005년 일본, 2009년 한국에서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에서 석면사용이 금지되었지만 더 많은 나라들에서 아직도 석면이 사용중이다.
- ⑥ 한국에서는 1997년 청석면, 갈석면이 사용금지되었고 2003년부터는 트레몰라이트석면, 액티놀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등 각섬석계열의 석면이 사용금지되었으며 2009년부터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사회문제, 환경문제로서의 석면문제는 사용금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2009년 이전에 사용된 석면건축물이 공공건물과 학교 등의 경우 전체 건축물의 80% 내외로 많다. 학교의 경우 최근 전국적으로 석면제거가 이루어지지만 아직도 전국 학교의 절반 가량이 석면건축물이다.



- ⑦ 석면사용금지 이전에 사용된 석면건축물이 노후화되어 환경중으로 석면오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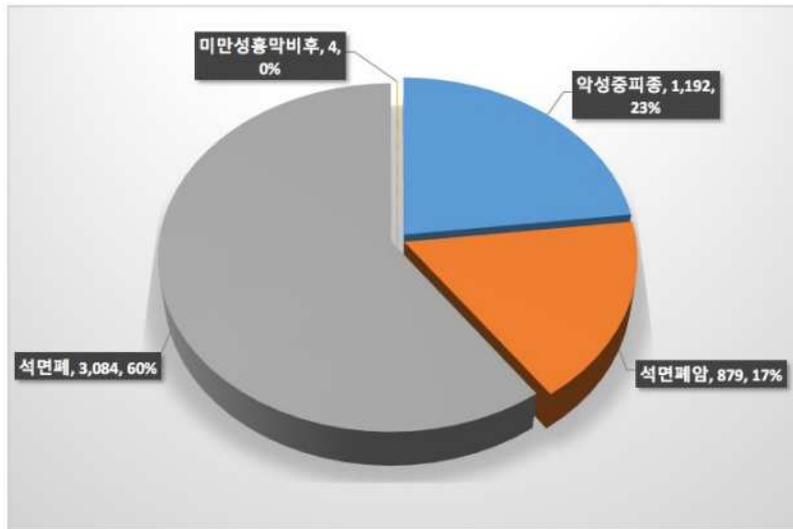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대규모 석면철거가 이루어지지만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석면노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 ⑧ 초미세먼지와 같은 나노단위의 작은 석면섬유가 공중에 떠돌다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와 폐에 꽂히면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미만성흉막비후, 후두암, 난소암 등의 치명적인 석면 질환이 발병한다. 소량의 석면노출이 있더라도 폐포 속에 석면이 자리잡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서서히 흉막까지 파고들며, 체내의 방어기전을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는다.
- ⑨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등 석면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장기 생존율이 저조하다. 특히 석면노출에 의해서만 발병되는 악성중피종의 경우 예후가 매우 안 좋은 데다 5년 생존율도 10% 미만이며, 별다른 치료법도 아직 없어 수술과 몇 종류 안 되는 항암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석면질환 중 가장 특징적이며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과 시행

- ① 2007년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서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 다수 발병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어 1970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부산시내 곳곳에서 가동되었던 석면방직공들의 인근주민들에게서 석면질환이 다수 검진되었고,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에게서 석면질환이 대거 발병해 직업병으로 인정되었으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배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② 2008년부터는 석면폐광산이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 홍성군, 보령군, 청양군을 중심으로 석면질환자들이 다수 검진되기 시작했다. 이어 충북 제천과 경기도, 강원도, 경북 등의 석면광산 지역에서도 석면피해자들이 검진되었다.
- ③ 석면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피해대책이 요구되었고, 2008년 7월 석면피해자와, 환경단체, 노동조합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족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 Asbestos Network Korea)의 주도로 석면피해특별법 제정 전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국회에서 환경성 석면피해대책 법률이 4개나 발의되었다. 특별법의 형태로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악성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 원발성폐암(lung cancer), 석면폐(asbestosis) 3가지 석면질환에 대한 피해구제를 내용으로 201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미만성흉막비후(diffused pleural thickness)가 인정질환으로 추가되었다.

- ④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지원센터는 매달 지자체를 통해 석면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매달 판정결과를 발표한다. 2011 년 1 월부터 2021 년 5 월말까지 10 년 5 개월동안의 성과를 보면, 모두 7,386 명이 접수되었고 이중 1,336 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중 5,159 명이 구제대상으로 인정되었고(인정률 70%) 이중 사망자는 927 명이다. 인정자중 석면폐가 3,084 명으로 가장 많고, 악성중피종이 1,192 명, 폐암 879 명, 미만성흉막비후 4 명이다. 생존상태에서 구제인정되었으나 이후 지금까지 사망한 사례는 모두 858 명으로 구제인정 이전에 사망한 927 명과 합해 구제인정 사망자는 모두 1,785 명이다.



<그림, 2011 년부터 2021 년 5 월까지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5,159 명의 질환별 현황>

3) 광주전남지역 석면피해실태 조사 배경

- ① 2021 년 들어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0 년을 맞아 그동안의 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2021 년 4 월말까지의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석면피해신고 및 인정현황 자료를 입수해 이를 분석해 자치단체별 석면피해실태를 알려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 ② 2009 년부터 신규 석면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이전에 사용된 석면건축물이 아직 많고, 학교석면 및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석면노출이 심각하며 석면에 노출되면 10~40 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석면질환이 발병하는 특징을 고려할때 앞으로도 수십년간 석면의 위험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문제점 때문이다.

4) 광주 동구 4구역 재개발 건물붕괴참사지역 등 석면조사

- ① 이 보고서를 작성중인 2021년 6월 9일 광주의 재개발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붕괴되어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 ② 이후 이 참사 현장의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석면철거와 건물철거의 비리와 불법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석면철거(해제,제거)는 1급 발암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현장으로 소홀히 취급될 경우 작업자들의 석면노출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석면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작업이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의 석면문제는 2005년 서울의 원촌중학교 인근지역 주민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어 2008~2011년 소위 서울 뉴타운 재개발 붐으로 인해 대규모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사회문제화되었다. 그러나 석면철거 현장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부와 지자체의 감독의지와 기능이 약해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③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광주 붕괴참사 현장의 석면철거가 불법 하도급을 이루어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분명 석면철거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2021년 6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④ 이 보고서의 석면피해 및 재개발 현장 석면조사 내용이 서둘러 시민들에게 전달되어 석면의 위험성과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지고 관련 정부정책이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2 광주광역시 석면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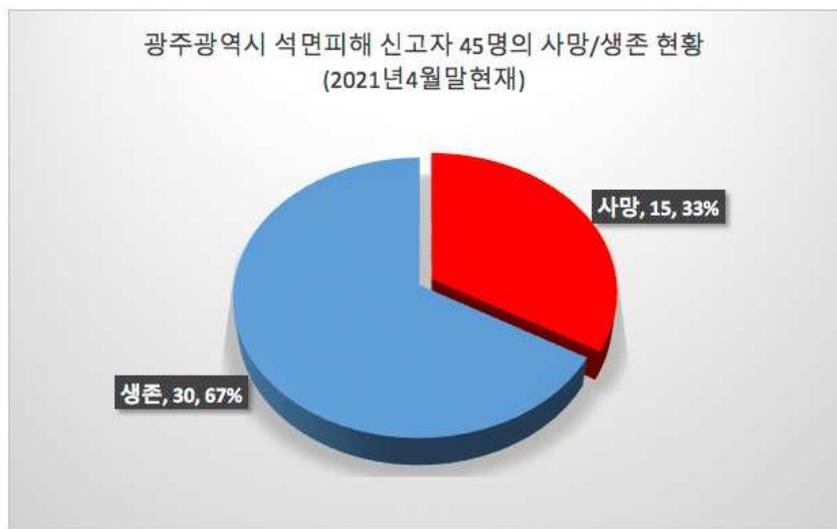
1) 광주광역시 석면피해 전체 현황

- ①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 년 1 월부터 2021 년 4 월까지 10 년 4 개월 동안 광주광역시 거주 시민 중에서 구제법에서 인정하는 4 가지 석면질환이 발병해 신고하고 인정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광주 광역시 (2021년4월말 현재)	사망	생존	악성 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	미만성 흉막비후	계
신고	15	30	33	6	6	0	45
인정	11	23	26	6	2	0	34
불인정	4	7	7	0	4	0	11
인정률 (%)	73.3	76.7	78.8	100.0	33.3		75.6

<표, 광주광역시의 석면질환 피해신고 및 인정 현황 종합>

- ② 광주시민중 석면질환이 발병해 피해를 신고한 사례는 모두 45 명이다. 이중 33% 15 명은 피해신고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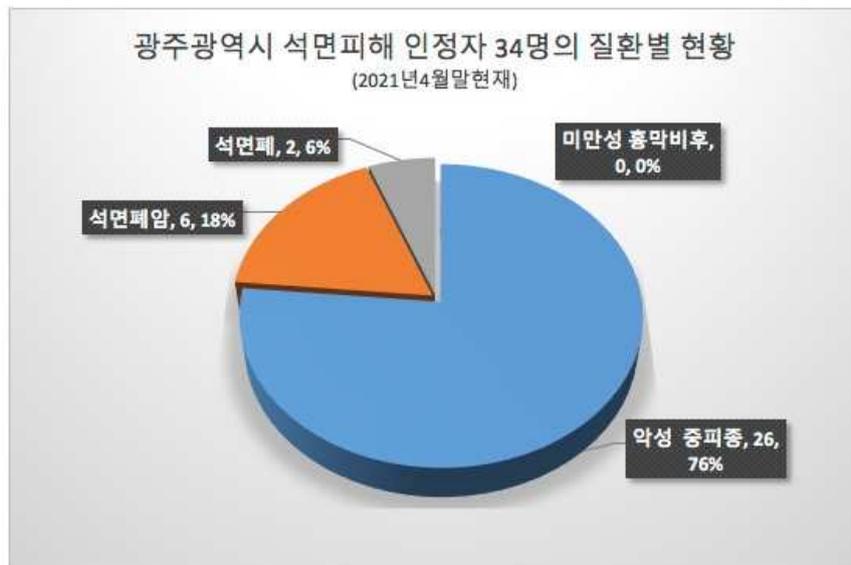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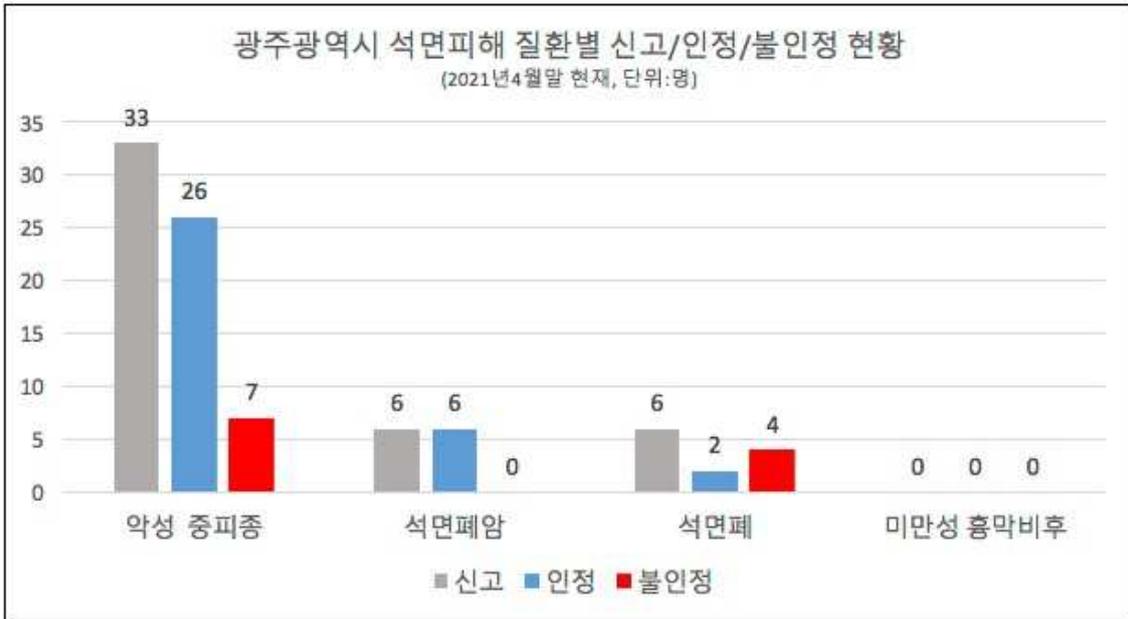
- ③ 피해신고자 45 명중 34 명이 구제대상자로 인정되었고 11 명은 불인정이다. 구제

인정률은 76%다.



- ④ 석면질환별 인정 현황을 보면, 악성중피종이 전체인정자 34 명의 76% 26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석면폐암이 18% 6 명이며, 석면폐는 6% 2 명, 미만성흉막비후는 없다. 전체 인정률은 75.6%로 4 명중 3 명꼴로 인정되었다. 질환별 인정률은 석면폐암이 100%로 가장 높았고, 악성중피종은 78.8%이며 석면폐는 33.3%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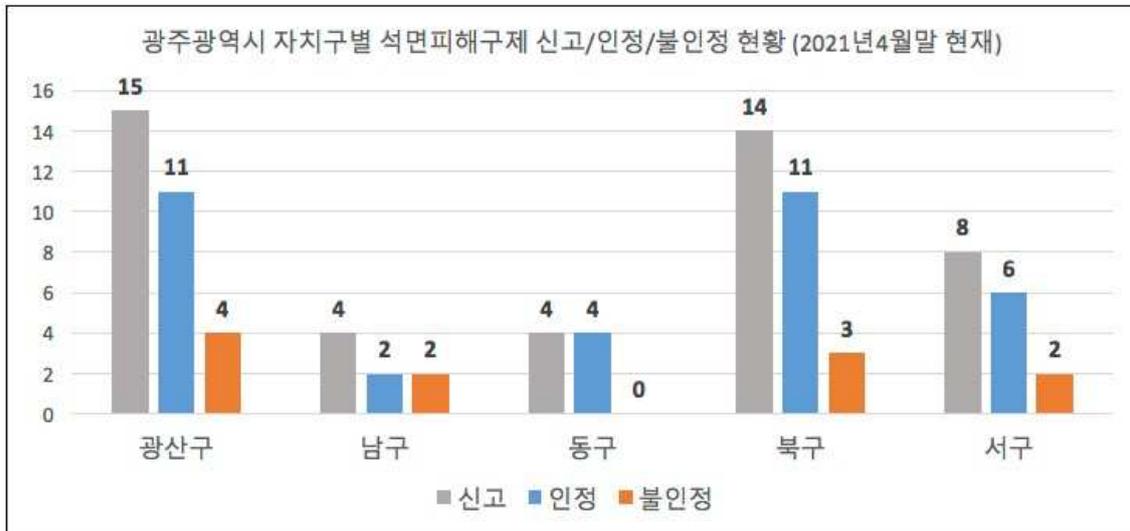


2) 광주광역시 5 개 기초자치구별 석면피해 현황

- ① 광주광역시의 5 개 기초자치구 모두에서 석면피해자가 나왔다. 구별 석면피해현황을 신고자가 많은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산구에서 신고자 15 명으로 가장 많고 이중 11 명이 인정되었고 4 명은 불인정이다. 북구에서는 14 명이 신고되었고 이중 11 명 인정 3 명 불인정이다. 이어 서구에서 8 명 신고 6 명 인정 2 명 불인정이다. 남구에서는 4 명 신고 2 명 인정 2 명 불인정이며, 동구에서는 4 명 신고 4 명 인정이다.

광주 광역시 (2021년4월말 현재)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계
신고	15	4	4	14	8	45
인정	11	2	4	11	6	34
불인정	4	2	0	3	2	11
인정률 (%)	73.3	50.0	100.0	78.6	75.0	75.6

<표,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석면피해구제 신고,인정,불인정 현황>



3 전라남도 석면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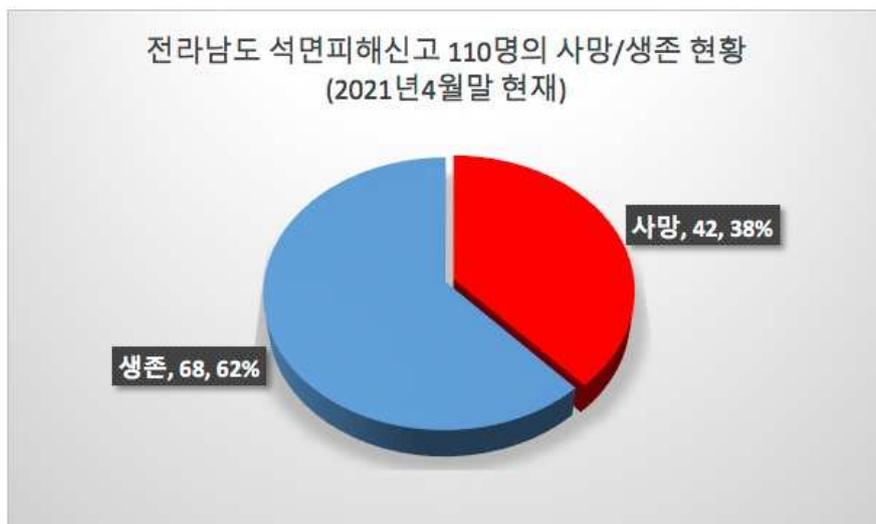
1) 전라남도 석면피해 전체 현황

- ①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0년 4개월 동안 전라남도 거주 도민 중에서 구제법에서 인정하는 4가지 석면질환이 발병해 신고하고 인정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전라남도 (2021년4월말 현재)	사망	생존	악성 종피종	석면폐암	석면폐	미만성 흉막비후	계
신고	42	68	56	20	34	0	110
인정	25	44	39	10	20	0	69
불인정	17	24	17	10	14	0	41
인정률 (%)	59.5	64.7	69.6	50.0	58.8		62.7

<표, 전라남도의 석면질환 피해신고 및 인정 현황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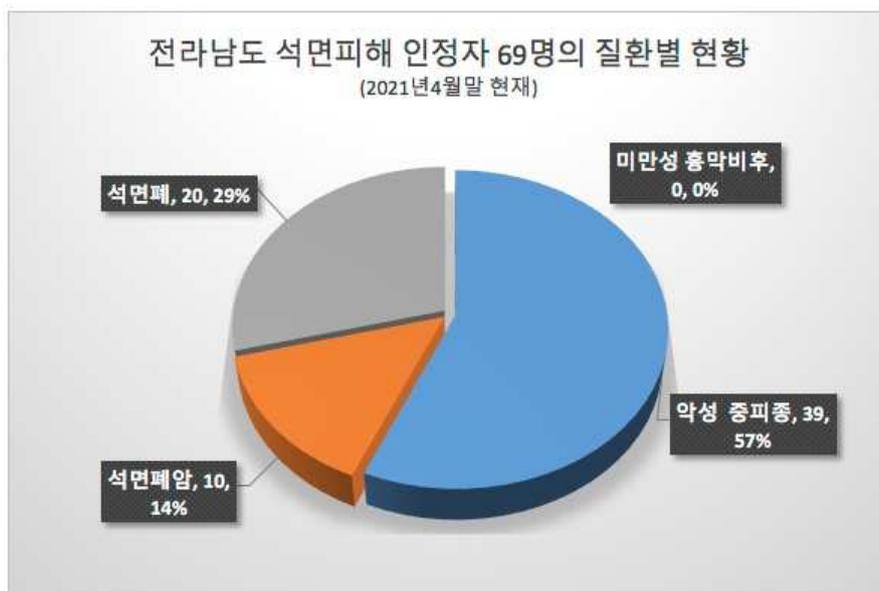
- ② 전남도민 중 석면질환이 발병해 피해를 신고한 사례는 모두 110명이다. 이중 38% 42명은 피해신고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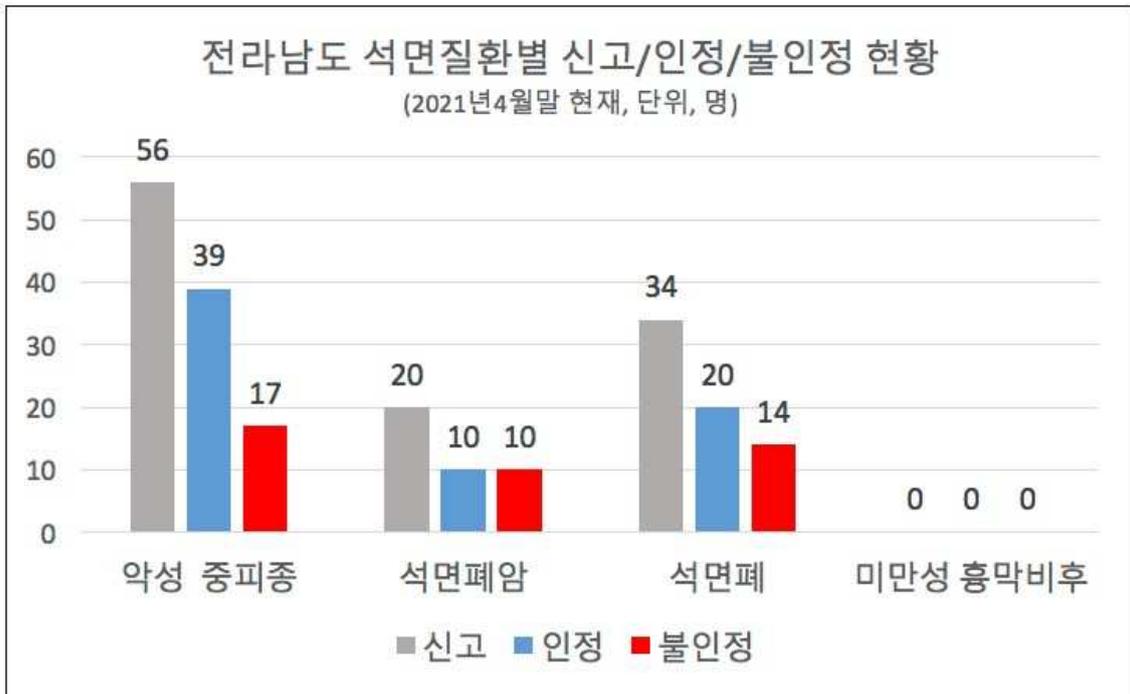


- ③ 피해신고자 110 명중 69 명이 구제대상자로 인정되었고 41 명은 불인정이다. 구제 인정률은 63%다.



- 2) 석면질환별 인정 현황을 보면, 악성중피종이 전체인정자 69 명의 57% 39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석면폐가 29% 20 명이며, 석면폐암은 14% 10 명, 미만성흉막비후는 없다. 전체 인정률은 62.7%다. 질환별 인정률은 악성중피종이 69.5%로 가장 높았고, 석면폐 58.8%이며, 석면폐암은 50%로 가장 낮다.





3) 전라남도 22 개 기초자치 시군별 석면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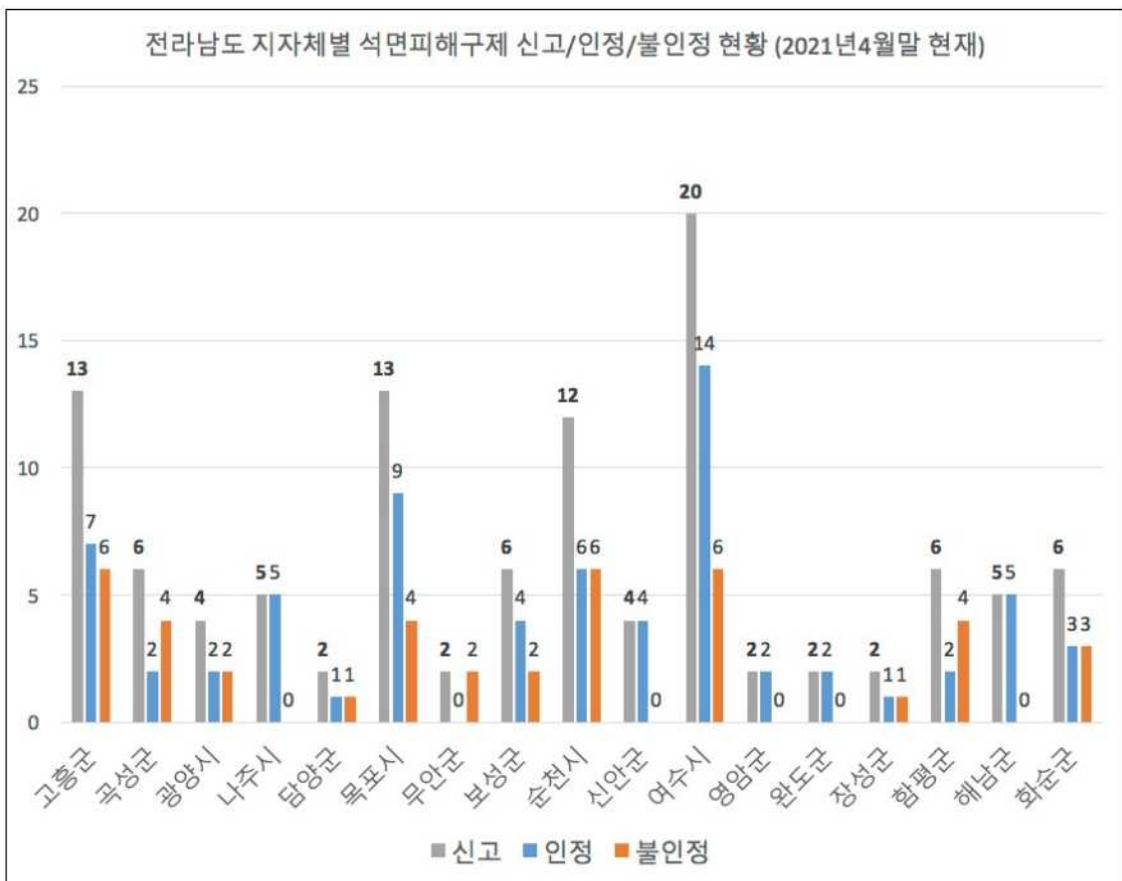
- ① 전라남도의 22 개 기초자치 시군 중 강진군 구례군 영광군 장흥군 진도군 등 5 개 군을 제외한 모두 17 개 시군에서 석면피해자가 나왔다. 시군별 석면피해현황을 신고자가 많은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② 여수시에서 신고자 20 명으로 가장 많고 이중 14 명이 인정되었고 6 명은 불인정이다.
- ③ 다음 고흥군, 목포시, 순천시에서 각각 10 명 이상의 석면피해자가 나왔다. 고흥군에서 에서 13 명이 신고되었고 이중 7 명 인정 6 명 불인정이다. 목포시에서 13 명 신고 9 명 인정 4 명 불인정이다. 순천시에서는 12 명 신고 6 명 인정 6 명 불인정 이다.
- ④ 다음 곡성군, 보성군, 함평군, 화순군 등 4 곳은 각각 6 명이 신고되었다. 곡성군에서 2 명 인정 4 명 불인정이고, 보성군에서 4 명 인정 2 명 불인정이며, 함평군에서 2 명 인정 4 명 불인정, 화순군에서 3 명 인정 3 명 불인정이다.
- ⑤ 나주시와 해남군에서 각각 5 명이 신고되었고 모두 인정되었다.
- ⑥ 광양시, 신안군에서는 4 명이 신고되었는데, 광양시 2 명 인정 2 명 불인정이고

신안군은 모두 인정되었다.

- ⑦ 담양군, 무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의 5 곳에서 각 2 명씩 신고되었다. 담양군과 장성군은 각각 1 명 인정 1 명 불인정이고, 무안군은 모두 불인정, 영암군과 완도군은 각각 모두 인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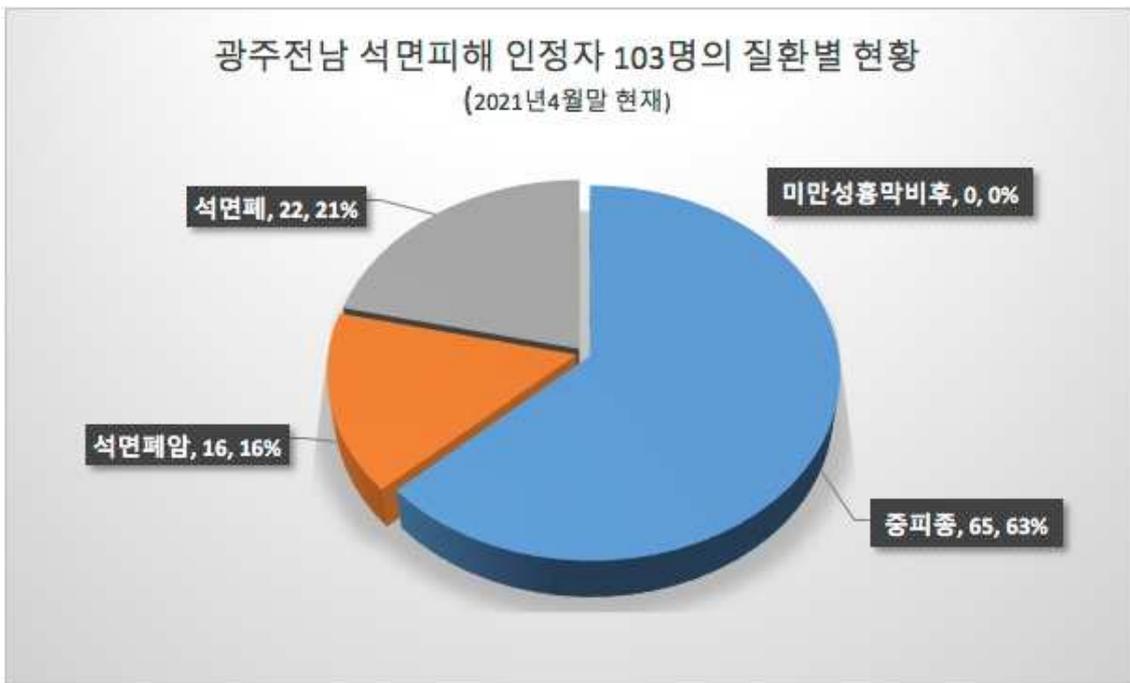
전라남도 (2021년4월말현재)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계
신고	13	6	4	5	2	13	2	6	12	4	20	2	2	2	6	5	6	110
인정	7	2	2	5	1	9	0	4	6	4	14	2	2	1	2	5	3	69
불인정	6	4	2	0	1	4	2	2	6	0	6	0	0	1	4	0	3	41
인정률 (%)	53.8	33.3	50.0	100.0	50.0	69.2	0.0	66.7	50.0	100.0	70.0	100.0	100.0	50.0	33.3	100.0	50.0	62.7

<표, 전라남도 자치 시군별 석면피해 신고,인정,불인정 현황>



4 광주전남 석면피해 종합

- 1) 광주와 전남의 합한 광주전남지역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 광주전남의 석면피해 신고자는 모두 155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57 명 생존자는 98 명이다.
- 3) 신고자 155 명 중 66.5% 103 명이 인정되었고 52 명은 불인정이다.
- 4) 인정자 103 명의 질환별 현황을 보면, 악성중피종이 63% 65 명으로 가장 많고, 석면폐 21% 22 명이며, 석면폐암은 16% 16 명, 미만성흉막비후는 없다.



5 문제점과 해결방향

1) 광주전남 지역의 석면 건강피해 심각하다

- ① 2011 년부터 2021 년 4 월까지 10 년 4 개월동안 광주에서 45 명이 신청해 34 명이 인정되었고, 전남에서 110 명이 신청해 69 명이 인정되어 광주전남 전체적으로는 155 명이 신청해 103 명이 인정되어 인정률은 67%다. 질환별로는 악성중피종이 65 명, 석면폐 22 명, 폐암 16 명이다.
- ② 악성중피종, 폐암은 진단후 사망까지 생존기한이 짧아 예후가 매우 안좋은 석면질환이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으로 인정된 103 명중 이미 사망한 후에 신청된 경우가 광주 11 명, 전남 25 명으로 모두 36 명이다. 구제인정당시 생존했던 환자는 67 명인데 이들중 상당수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구제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11 년부터 2021 년 4 월말까지 진행된 구제심사에서 인정당시 생존했던 환자는 4,165 명인데 이중 20%인 847 명이 사망했다. 따라서 광주전남지역에서 2021 년 4 월까지 구제인정된 석면피해자 103 명중 구제당시 이미 사망한 36 명외에 구제당시 생존했던 67 명의 약 20% 13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어, 광주전남지역의 석면피해 구제인정자 103 명중 현재까지 사망자는 49 명 생존자는 54 명으로 추산된다.
- ③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및 인정의 몇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 환경성이라지만 전체의 절반정도는 직업성 석면노출의 특징이 있고, 둘째 지역별 특징으로서 충남과 부산의 피해자 숫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충남에는 석면광산들이 부산에는 석면방직공장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즉 해당지역에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이 오랫동안 가동된 경우 피해자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인구규모에 비례해서 석면피해자가 발생하는 편이다. 셋째 질환별로는 석면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데 국제적으로는 악성중피종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과 대비된다.
- ④ 이 보고서에서 처음 공개하는 기초자치단체별 석면피해현황의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심층분석이 요구되는데,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에서 첫째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이 가동되었는지, 둘째 슬레이트를 사용한 대규모 석면건축물의 오랫동안 있었는지, 셋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그것이다.

A 광주시의 경우 광산구와 북구가 다른 지역보다 석면피해인정자가 많은데, 이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은지,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이 있었는지 등의 추가조사를 통해 석면피해자가 많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 B 전라남도의 경우 특징적으로 군단위인 고흥군에서 석면피해신고자가 13 명으로 전남 22 개 시군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인구가 더 많은 광양시나 나주시보다 2 배 이상 많고 순천시보다도 많다. 고흥군내에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이 가동되었는지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
- C 이들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조사결과 석면오염원이 있었다면, 이후에도 당분간 석면피해자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석면피해자임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 및 검진누락 석면관련성 미파악 등의 이유로 누락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밀조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재개발 재건축 석면철거 문제,

- ① 사망자 9 명, 부상자 8 명이나 발생한 2021 년 6 월 9 일 광주광역시 동구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물 전체를 철거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석면철거 신고하고 전문 철거업체가 법에 의한 안전조치에 따라 석면은 안전하고 완전하게 제거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29-18 번지 4 구역 재개발로 대인개발이 2020 년 6 월부터 2021 년 5 월까지 1 년 동안 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 석면 등 28,095 m² 의 대량 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한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이번 붕괴사고 현장의 경우 1 급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위험한 사업장에서는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진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②

3) 특히, 과거 새마을운동의 잔재인 석면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가옥의 방치와 조속한 철거필요,

4) 학교석면문제,

①

5) 시멘트석면문제

①

6) 지역내 석면광산, 석면공장 등의 존재여부와 이로 인한 주민,노동자 건강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필요

①

7) 석면피해구제법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열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Ban Asbestos Network Korea, BANKO 반코)의 상징이미지

석면의 영문자 asbestos 의 첫 a 를 사람의 코와 폐로 작은 석면섬유입자가 노출되어 폐를 공격하고 석면질환이 발생한다는 석면노출과 치명적 질병발생의 문제점을 형상화했다.

designed by 윤호섭